

# 한여름 배낭 속의 슬픈 시집

## 끝내 읽지 않았던 책 이야기

황현산

강원대 불문과 교수

고등학교 2학년이면 바람들기 좋은 나이다. 나는 바람들었던 그 해 여름에 처음 제주도에 갔다. 형식은 유전이고 실체는 무전이었다. 그 일주일의 여행길이 어느 잠자리를 거쳐 어떤 물결로 끝났는지 지금은 기억할 수 없다. 그러나 안개 속의 시간에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분명한 세부가 숨어 있고 그것이 어쩌다 불쑥 나타나 사람을 못 살게 한다. 그때는 아직 저세상 사람이 아니고 아마 늙지도 않았을 박양균의 시집 한 권이 내 짐 속에 있었다. 하필이면 박양균이었을까. 당시 우리 국어 선생님이었던 권 아무개 시인이 문예반 학생들에게 그 시집을 한 권씩 떠맡겼던 것이 여름 방학직전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정말 읽을 틈이 있으리라고 여기고 그 비좁은 군용 배낭 속에 꾸러넣었을까. 나는 물론 그 정답을 알지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려면 내 생애의 모든 부끄러움을 함께 고백해야 한다. 그 건방지고 압담한 주지주의 시를 비록 한두 줄 읽었다한들 그 바람 든 여행길에서 무엇을 이해했을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해되는 것은 시가 아니라 모든 문학 소년들이 철석 같이 믿던 시절이었다.

이해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다 간직하는 시, 그것이 또한 그 해 여름의 내 제주도이기도 하다. 어떻게 간신히 얻어 탄 버스가 서귀포 근처에서 한라산의 어느 계곡을 마주 보고 달려갔다. 햇빛은 그렇게 눈부시고, 수림은 그 두께를 모르겠고, 푸른 그림자들은 그 깊은 골짜기 속으로 아득히 달아나는데, 그때 나였던 소년의 가슴을 건드릴 수 없이 짓누른 것은 무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어떤 초조감이었다. 아마도 보아서는 안될 것을 보았다고 해야 하리라. 나날의 수많은 의무와 그것을 반도 이행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에서 한 시도 헤어날 수 없었던 소년에게는 그 찬란하고도 아득한 빛을 바라볼 준비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이 햇빛은 억압의 시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어떤 완벽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득하기는 저 골짜기와 다르지 않다. 그때 내가 랭보를 지금처럼만 알았더라도, 그 가솔 소년의 「골짜기에 잡든 사람」 한 편만 읽었더라도 그 한라의 계곡 앞에서 느꼈던 내 불행은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처참한 전쟁의 희생자가 되던 자살을 감행하던 죽음만이 나를 그 찬란한 세계의 일부로 만든다고 그렇게 이해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잘 된 일이다. 배낭 속에 시집을 간직하듯 그 초조감을 간직하는 편이 더 나으리라.

육군 사병으로 훈련소에 들어갈 때는 한겨울이었는데, 그때도 나는 시집을 한 권 가지고 갔다. 책상 머리에 앉아서 읽기도 어려운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를 그것도 불어판으로 쟁겼으니, 역시 부끄러운 기억 중의 하나다. 관물대에 어렵게 숨겨야 했던 그 시집을 물론 나는 한 줄도 읽지 않았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상쇄할 만한 한 가지 부분이 있었다. 훈련 동기생 중에 성악가 지망생이 있었다. 총검술 훈련을 하던 막간에 오라회가 열렸다. 훈병 누구누구 노래 일발 장진, 발사. 그래서 노래를 발사하고 짹짹 박수를 치고 그런 것이다. 우리 성악가가 끌려나갔다. 그는 노래를 앉겠다고 미국 영화의 노새처럼 고집을 부렸다. 교관은 오라시간을 연장했고, 조교들이 돌아가며 전 중대원의 뺨을 때렸다. 따귀가 두 순배 돌아갔을 때, 그가 마침내 장진 발사 절차 없이 노래를 불렀다. 「아침 이슬」을 성스럽게 불렀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아무도 박수 칠 엄두를 못 냈고 사위가 적막한 가운데 오라시간이 끝났다. (나는 이 이야기를 내 친구 소설가 이윤기에게 들려주었는데, 그가 이걸 약간 비틀어 소설을 만들었다.) 그날 밤 우리 성악가가 불침번을 서다가 그 고약한 분탄 난로의 불을 꺼뜨렸다. 내가 외곽 보초를 서고 들어오다 보니 그가 내 시집을 불쏘시개로



쓰고 있었지만 나는 용감하게 모르는 척했다. 그 여름 제주도에서처럼, 시집을 읽을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군대 이야기 계속이다. 제대할 때까지 3년동안 나는 친구들에게 시집을 보내달라고 즐기치게 편지를 했고 다섯번 편지에 한번쯤은 감동하는 친구가 있었다. 행군을 나갈 때는 반드시 배낭 밑바닥에 시집을 깔았다. 행군이란 밤에는 걷고 낮에는 졸면서 걷는 것을 말한다. 한번은 완전군장으로 30킬로 구보를 하던 중에 내가 너무나 못견뎌하자, 의리있는 진도 출신 고참이 내 배낭을 대신 쳐다 주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배낭 밑바닥에서 시집이 세권이나 나오자 빨다를 다섯 대나 때렸다. 이 쓸 데 없는 것을. 그의 말이 백번 옳았다. 나는 군대 3년 동안 그 시집들을 제대로 읽은 적이 없다. 시간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어느 것도 내가 기다리던 시간은 아니었다. 시집은 하나의 상징(나는 이 말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그 여름의 찬란한 햇빛과 끝내 내게 주어지지 않을 그 아득한 골짜기에 대한 상징일 뿐이었다. 그것이 내 배낭 속의 슬픔임을 내게 알려주려는 어떤 설득술이었다.

나이가 마흔이 넘었을 때부터 나는 그 찬란한 햇빛과 어떤 방식의 타협을 했다. 아니 햇빛의 도움을 받는 일종의 생리적 방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책을 결코 배낭 속에 넣지 않는다. 햇빛 밝고 뜨거운 날 나는 시집을 들고 실내의 어두운 곳을 찾아 들어가 앉는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를 '눈여겨' 읽는다. 나와 같았을 어느 소년이 푸른 빛 눈부셨던 어느 골짜기 앞에서 느꼈을 절망을 터무니도 없는 글자 속에서 찾으려고 애쓴다.

고은 시인이 「가시리」의 후렴구에 들어 있는 '태평성대'를 슬픔의 無時間이라고 했던가. 시집 속에서는 글자가 무엇을 쓰고 있던 그것을 내가 찾던 완벽한 시간으로, 절망의 무시간으로 읽어야 한다는 시론을 하마트면 가질뻔도 했다. 시는 한 글자 한 글자로 읽을 때 언제나 그리고 비로소 순수시인 것이다. 이윽고 글자가 눈여겨졌을 때, 나는 햇빛을 이기지 못한다. 아찔한 현기증. 아득한 골짜기가 드디어 내게 온다. 여름 날의 햇빛 속에서 그리고 글자 속에서. 그래서 나는 시집의 글자가 가능한 한 깨알 같아야 좋다는 이상한 믿음을 선전하기까지 한다.